

▷ 韓國記錄管理學會 創立紀念 國際學術大會 基調講演

韓國記錄管理學의 現況과 未來\*

The Present and future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of Korea

韓 相完(Sang-Wan Han)

韓國記錄管理學會 初代會長

延世大學校 文獻情報學科 教授

◁ 목 차 ▷

1 서론: 한국기록관리의 과거와 현재

2 한국기록관리분야의 현황

3 한국기록관리학회의 위상

4 결 론

1 서론: 한국기록관리의 과거와 현재

우리 한민족(韓民族)은 예로부터 기록문화(記錄文化)에 충실(充實)하였던 민족이었습니다. 즉, 한국 고대 고분(古墳) 속의 기록에서부터 「삼국사기(三國史記)」·「삼국유사(三國遺事)」·「고려사(高麗史)」·「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등 국가의 역사기록을 철저히 남겼고,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비변사등록(備邊司謄錄)」 등 공공기관의 기록 또한

\* 이 논문은 2000년 7월 4일,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으로 발표된 논고임.

마치 회화(繪畵)나 영화를 보듯이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암일기(眉巖日記)」·저 유명한 「난중일기(亂中日記)」 등 전란(戰亂)의 와중에서도 개인에 의하여 기술(記述)된 기록물까지도 참으로 치밀하고 상세합니다.

그리고 각 씨족(氏族)의 가문마다 그 문중의 유명인사가 남긴 문집(文集) 또한 준비하게 생산되어, 각 가문마다 문집이나 족보(族譜)를 발행하지 않은 집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수많은 전란(戰亂)을 거치면서도 그 기록물의 보존 또한 어느 민족보다 투철(透徹)하였으며, 국가적 활동의 역사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또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수많은 기록물들을 남긴 한국의 기록문화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파국(破局)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즉, 일제(日帝)의 강점(強占)시대에는 항일독립투사 및 그 운동 관련자료들은 후환(後患)을 염려하여 의식적으로 아예 그 기록의 생산마저 단념(斷念)하였으며, 해방후 좌·우익의 대립 상황 속에서는 유명인사의 기록들은 은폐(隱閉)되었고, 6.25전쟁(戰爭) 중에는 수많은 기록물들이 소멸(消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및 4.19혁명(革命) 및 5.16군사쿠데타와 군부독재(軍部獨裁) 시대를 거치면서, 개인의 기록은 물론 심지어 국가의 중대사(重大事)에 관한 잔존(殘存)하는 기록자료마저 왜곡되는 경향도 있었고,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1980년의 광주민주항쟁 이후 국가최고권력자인 대통령의 통치사료(統治史料)마저 임의(任意)로 파기(破棄)되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20세기 백년 동안의 풍조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국가적 기록물이 방치(放置)되거나 사라져 가는 현상에 이르러 ‘20세기 한국의 기록문화는 공백(空白) 내지는 부재(不在)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탄식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민족의 오랜 전통(傳統)인 기록을 남기는 습관(習慣)마저 소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국가기록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시급하게 제정(制定)되는 배경과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1999년과 2000년은 한국기록관리분야에서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여는 의미 있는 연도가 되었습니다. 즉, 1999년에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 초에는 그 시행령이 반포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제정과 반포는 한국기록관리학의 학문적 영역 개척과, 이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각 대학교의 학부와 대학원에 기록관리학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기록관리학회>의 창립이 태동(胎動)되고, 또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오늘 동양삼국의 기록관리전문가들을 모시고 “지식기반사회(知識基盤社會)에서의 기록관리학(記錄管理學) 발전현황(發展現況)과 미래(未來)”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2 한국기록관리분야의 현황

이러한 한국의 기록관리와 보존의 변혁과 발전적인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관련법령의 제정, 2) <한국기록관리협회>의 활동 및 <한국기록관리학회>의 창립, 3) 기관별 기록관리의 실태조사 사항, 4) 기록관리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등 네 가지 측면입니다.

첫째,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과 작년에 기록관리법이 제정·반포되고 올해 그 시행령이 만들어진 단계이기 때문에, 한국의 기록관리분야는 극히 초보적인 걸음마 단계의 상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록관리법의 그 시행세칙은 지금 <정부기록보존소>의 실무자들이 준비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고, 기록관리법 또한 그 실행준비를 위한 2-8년의 유보기간을 거쳐야만 비로소 법령의 효력을 나타낼 수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 정부를 비롯한 관계 학계와 여러 기관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된 것도, 정부기록보존소 관계직원들의 개척정신과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에 그들의 노력을 치하(致賀)하는 바입니다!

하나 첨언(添言)할 것은, 이 법령은 단기간 내에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기록학회가 창립되면, 기록관리학 선진국들의 법령과 면밀히 비교·분석하고, 한국의 현실을 충분히 감안하고, 행정법전문가와 관련실무자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보다 실효성이 있으며 한국의 현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완벽한 기록관리법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

니다. 또한 여기에는 법제사(法制史)전문연구학자들도 참여하여 그 이론적 뒷받침도 충분히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이 한국기록관리분야는 <정부기록보존소>의 선도적인 노력에 의하여, 이제 그 뿌리가 활착(活着)되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금 후 정부기록보존소의 남효채(南孝彩) 소장께서 정식으로 상세히 발표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기록관리학회를 창립하면서 국제학술회의를 동시에 개최하고자 기획한 이유는, 바로 지금까지 한국기록관리분야를 선도하여온 정부기록보존소의 견해를 듣고, 또한 이웃 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있어서의 기록관리학의 발전현황과 그 전망들을 겸허하게 경청(敬聽)하여, 동양삼국 기록관리학의 비교와 교훈을 얻고, 그 기록관리분야의 실제 및 학문발전과정을 검토하여 그 발전적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한국기록관리학회의 기초를 다지고자 함입니다.

둘째,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995년에 창립된 이래, 초창기 협회 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이 단체는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그 활동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협회의 조직이 강화되면서 그와 동시에 그 업무도 증가되어, 기록관리학 실무의 실천적 분야와 정책적·이론적 분야를 분리시킬 필요성이 절실해지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한국기록관리협회는 1999년 제 1차(第1四分期) 이사회에서, '협회는 기록관리학 분야 중 실무적인 업무분야의 제반사항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측면은 한국기록관리학회를 창립하여 이 분야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협회와 학회가 마차(馬車)의 두 수레바퀴가 되어 한국의 기록관리학 분야를 전진(前進)·활성화시킬 것'을 결의한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협회는 협회의 회원 중 교수·연구진들이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준비위원회를 태동(胎動)시켜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기록관리협회는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창립되어 자립할 시점까지 재정문제 등 총력을 다하여 뒷받침한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그 결과, 1999년 7월 18일에 연세대학교 상남경영원에서 기록관리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문헌정보학·기록물보존과학(화학·생물학)·문화재보존학·출판학·사학·행정학·

법학·중문학·인쇄공학·정보통신공학 등의 전공교수들과 정부기록보존소의 간부 등 관련전문가 30여명이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한국기록관리학회(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창립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발기인 일동은 한국기록관리협회의 회장인 한상완 교수(연세대학교 연구처장)를 창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가급적 빠른 기간 이내에 한국기록관리학회를 창립할 것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창립준비위원회는 약 1년 동안 학회 창립을 위한 제반사항을 준비하여 오늘의 학회창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셋째, 한국 각 기관별 기록관리의 현황은 외람스럽게도 아직 그 전체적인 정확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저를 포함한 몇몇 전문연구자 그룹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지원을 의하여 “한국 공공기관 기록보존·관리의 현황파악 및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중·장기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라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팀은 현재 정부기록보존소와 협력하여 전국 약 1,000개소에 이르는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실태조사(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공공기관의 기록관리는 물론 개별기관 등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뒤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기록관리 현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중국과 일본을 위시한 미국·영국·러시아·프랑스 등 기록관리학 선진국가들의 그 발전과정과 정책 등에 대한 연구결과 및 각국의 장점들을 한국의 실정에 적합하게 융합(融合)·응용(應用)함으로써, 한국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중·장기 정책을 미시적(微視的)이며 동시에 거시적(巨視的)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넷째, 지난 2년에 걸쳐 정부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을 반포하였고, 이에 부응하여 기록관리학의 연구 및 전문요원 배출을 위하여 1999년에는 목포대학교 그리고 2,000년도부터 전국 각 대학교(경남대, 공주대, 명지대, 부산대, 연세대, 원광대, 청주대, 충남대, 한남대)의 대학원 석사과정에 ‘기록관리학과 또는 전공’이 신설되고, 연세대학교에서는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내에 기록관리학전공 박사과정이 설치되었으며, 한성대학교에는

학부에 기록관리학전공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들 대학원에서는 각자 독자적인 교육과정을 개설한 결과, ‘이상(理想)적인 기록관리전문요원의 배출을 위한 각 교육영역의 최적(最適)·최소(最小)의 교과목만이 라도 그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관점(觀點)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일본 스루가다이(駿河台)대학 지식정보학부 김용원(金容媛) 교수를 초청 하여, “기록관리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라는 귀중한 발표를 들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기록관리학회 연구활동이 개시(開始)되면, 학회에서 상기(上記) 대학원 기록관 리교육과정의 프로그램과 ICA(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의 SAE(The Section for Archival Education and Training)가 주관하는 여러 프로젝트<sup>2)</sup>를 비롯한 중국·일본 및 미국·영국·러시아 등 기록관리학 선진국들의 교육프로그램들 및 국제기록관리학의 연구분야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하여, 이를 한국의 실정에 응용(應用)함으로써 최적(最適)의 교육 과정과 기록관리학의 학문영역 등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기록관리학회지(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를 창간하여 이 분야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하고 발표하는 학술지를 발간할 것입니다.

2) ICA/SAE의 네가지 주제분야에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들 중, 기록관리의 연구분야를 가늠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것은 바로 1992년부터 시작했던 ‘기록관리 교육자들을 위한 국제적 서지 작성 프로젝트’이다. 그 중 ‘기록관리의 연구분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기록관리 용어(Archival Terminology), ②기록관리 이론(Archival Theory), ③기록관리 서비스와 전문성(Archival Services and Profession) -기록관리시스템, 기록관리기관, 기록관리 역사 -기록관리의 환경 -기록관리 전문가 -전문가 윤리, ④정보·레코드 관리(Information and Records Management), ⑤수서와 평가(Acquisition and Appraisal), ⑥배열·기술·탐색도구들(Arrangement, Description, Finding Aids) -일반적인 문제점들 -탐색도구들 -기술표준; 전거통제 -구체적인 포맷의 적용, ⑦보존과 보호(Preservation and Conservation) -종이의 보존 -복사기술, 마이크로 복사기술, 광학저장 -보존과 복구 -건물과 장비, ⑧기록물의 이용(The Use of Archives) -이용자 서비스와 접근 -이용자 가이드 -공공프로그램과 지원, ⑨기록기관의 종류(Special Categories of Archives) -국가기록관과 정부기관들의 기록기관들 -지방 및 지역 기록기관 -법률 및 공증 기록기관 -대학의 기록기관 -병원의 기록기관 -교회의 기록기관 -기업의 기록기관 -개인 기록기관, ⑩레코드의 종류(Special Categories of Records) -비정형(non textual) 레코드와 기계가독레코드 -그림 레코드 -사진 레코드 -시청각 레코드 -전자레코드, ⑪경영상의 관심사들(Administrative Concerns) -기록물 자동화와 자동 데이터처리과정 -법률, 규정, 법적 쟁점들 -기록관리프로그램들; 기록관리서비스 관리, ⑫기록관리 간행물들(Archival Periodicals).

### 3 한국기록관리학회의 위상

한국기록관리학회 창립준비위원회의 책임을 맡은 저로서는, 앞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가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고 또 그 연구분야나 영역의 설정 및 정책방향 등 학회가 나아가야 할 진로에 대하여 고심(苦心)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저 나름대로 정리된 학회의 진로와 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기록관리학회는 이제 창립과 더불어, 국제기록관리학에 있어서 각국 기록관리학회 각각의 발전역사와 그 연구성과 및 기록관리학의 연구영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중국 당안학(檔案學)의 연구영역 및 분야에 대해서는, 오늘 초청된 중국인 민대학[교] 당안(檔案)학원[대학] 원장[학장]인 馮惠玲(Feng Hui-ling)교수께서 자세하게 발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게이오(慶應義塾)대학[교]의 高山正也(Takayama Masaya)교수께서 일본의 기록관리학에 관하여 상세하게 발표하여 주실 것입니다. 특히 다카야마 교수님의 일본기록관리학회 초창기 학회운영의 경험과 반성에 관한 사항은 우리가 깊이 명심(銘心)해야 할 귀중한 말씀이라고 판단됩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중국과 일본의 기록관리학의 발전과정과 전망을 경청하고, 또 서방 선진국들의 기록관리학 연구의 사례를 분석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는 비록 그 출범은 늦었으나 각국 기록관리학회의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착실한 연구를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결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선진국의 시행착오(施行錯誤)를 되풀이하지 않고, 굳건하고도 모범적인 한국기록관리학을 구축(構築)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한국기록관리학회는 “기록관리학(記錄管理學)”과 연관(聯關)되는 모든 학문분야<sup>3)</sup>들의

3) 예컨대, ①韓國學 관련 각 主題史: 韓國 政治史·經濟史·社會史·文化史(美術史·藝術史 등), ②保存科學과 관련한 化學·微生物學·紙類保存修復學, ③기록관리학의 正體性과 本質을 위한 哲學, ④기록관리학 관련법의 제정(制定) 문제와 관련한 法學, ⑤기록관리의 복잡한 상관관계의 分析을 위한 數學·統計學, ⑥기록관(<기록보존소>·<자료관> 등)의 건축 및 운영과 관리의 원활을 위한 經營學·도서관정보센터경영학·建築學, ⑦컴퓨터공학 및 정보네트웍(情報流通 包含), ⑧文獻情報學一般

제이론(諸理論)과 실제(實際)들은 물론 관련 각 학문을 전공하는 전문연구자들 및 기록관리 관련실무자 등 모든 구성원들이 기록관리학회라는 하나의 용광로에 투입되어 융합(融合)·용해(鎔解)됨으로써,<sup>4)</sup> 각 학문의 성격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합성체인 “한국기록관리학”이 창출되어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는 마치 기존의 철(鐵)광석에 니켈과 크롬을 많이 혼합하여 용해시킴으로써 녹슬지도 않고 부식(腐蝕)되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아주 강인한 스테인리스강철(鋼鐵)을 합금·제조하듯이, 다양한 학문분야 연구자들 및 실무자들이 한국기록관리학회라는 하나의 가치 하에서 융합되고 결합(結合)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학”이라는 새롭고 강인한 학문을 구축(構築)하여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기록관리학”의 태동(胎動)·성장·발전의 근간(根幹)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학문분야의 출신연구자들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기존의 학문분야에 대한 영역과 고유성(固有性)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영역과 주제를 한국기록관리학회라는 단일(單一)의 용광로에 기꺼이 쏟아 넣어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한국기록관리학회는 그 역사적인 출범에 즈음하여 “기록관리학”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의 전문학자와 전문연구자 및 관련실무자들에게 그 문호(門戶)를 완전(完全)히 개방(開方)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 4 결 론

및 書誌學·情報學·인터넷情報檢索學·情報調查提供學, ⑨기록정보의 효과적인 축적을 위한 멀티미디어 관련학문, ⑩기타 기록관리학 연관학문 등.

- 4) 기록관리학과 연관되는 각 학문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어떤 교육도 받지 않고 그대로 기록관리학 분야에 투입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기록관리학에서 필요한 ‘기록관리사’의 업무는 기록관리학(記錄管理學)과 관련된 다른 전문직업군과는 관련이 있되 확연히 구분된다. 예컨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서(司書)와 기록관리사는 연구를 위한 자료들을 수집·보존·이용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반면, 이러한 자료들이 배열·기술·사용되는 방법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레코드관리자와 기록관리사 또한 밀접한 관련을 지니나, 레코드관리자가 폐기될 운명의 상당량의 기관레코드를 처리하는 반면, 기록관리사는 소량의 레코드를 관리하되 그 레코드가 매우 중요하여 계속 보존되어야 할 레코드라는 점에서 다르다. 박물관의 큐레이터와 기록관리사 또한 관련은 있지만 전자는 그 처리하는 대상이 3차원의 자료라는 점에서, 기록·필름·전자레코드를 다루는 기록관리사와는 사뭇 다르다. 마치 막으로 역사가와 기록관리사는 오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둘의 차이는 기록관리사가 레코드를 식별·보존·이용하게끔 하는 반면, 역사가는 연구를 위해서 기록관리레코드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서로 상이(相異)하다.

한국기록관리학회의 창립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연구에 종사하는 다양한 모든 분야의 전문학자 및 실무자들이 화합(化合)하고 대동단결(大同團結)하여 한국기록관리학회의 회원으로 구성됨으로써, 학회가 한국기록관리학 연구의 광장이 되어야만 비로소 한국기록관리학회의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에 과거 20세기의 한국기록관리문화의 공백기를 넘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탄생된 한국기록관리학회의 태동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든 학회의 연구활동이 이루어지고, 각 대학에 개설된 학부 석·박사과정의 기록관리학분야의 정규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기록관리학은 지금부터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견인할 세계적인 시야를 가진 기록전문가를 양성하고, 이와 더불어 기록관리의 현장을 발전시킬 한국기록관리분야의 이론적이고 전문적인 뒷받침을 갖게 된 이 시점부터 우리나라는 찬란한 기록문화의 중흥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원고접수일 : 2000. 6. 15)

к с і